

## 健腦의 治法, 治方에 대한 文獻的 考察

金 禹 淵\* · 金 德 坤\*\*

### I. 緒 論

腦는 脊髓와 함께 中추신경계를 형성하는데 말초에서 오는 체내외의 모든 정보를 통합, 분석, 정리한 후 결론을 내려 말초 신경을 통하여 적절한 정신 및 육체 활동을 영위하며 자율신경에 의하여 내장기관을 조절하는 중추이다.<sup>3)</sup>

그러나, 東醫學에서는 이러한 西醫學에서의 腦의 개념과는 별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腦에 대해 東醫學에서는 寄恒之府이며 腎精과 五臟六腑之精으로부터 化生한다고 하였다. 뇌의 중요한 기능인 생명활동이나 정신활동에 대해서는 藏象學說에 의거하여 心臟을 비롯한 臟腑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었다.<sup>4)</sup>

<內經>이래로 東醫學에서는 인간의 생명활동 현상 및 정신활동은 心臟神하여 心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五志, 七情을 五臟에 배속하여 정신활동 및 정서와 五臟의 상호관계를 표현하였다. 한편, 腦髓의 생성면에 있어서는 "腎 主骨生髓 通於腦"하여 腎精에서 생성하는 것으로 보았다.<sup>5)</sup>

따라서 治療面에 있어서도 腦에 관한 직접적인 論治보다는 心, 脾, 腎을 비롯한 五臟의 기능을 중심으로 養心, 補腎, 健脾 등의 辨證論治가 이루어졌다.

本人은 西醫學에서 언급되는 腦에 대한 東醫學의인 觀點을 조사하고, 健忘을 중심으로 健腦에 대한 東醫學의인 治法과 治方을 조사하기 위해 韓方文獻 考察을 하면서 약간의 知見을 얻었으므로 本 小考에 임하게 되었다.

### II. 調 査 方 法

먼저 腦에 관한 東醫學의인 觀點을 조사하기 위해 <內經> 중에서 生理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健腦에 대한 治法과 治方에 있어서는 31 種의 文獻을 통하여 病證 가운데 健忘과 補益益智方을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하였다.

### III. 本 論

(1) 腦에 대한 東醫學의인 觀點

1) 東醫學의인 腦의 生理와 病理<sup>2,4,5)</sup>

"腦는 髓骨脈膽女子胞와 함께 地氣之所生으로 皆藏於陰而 象於地하며 藏而不瀉하는 寄恒之府" 라 하여

\* 서울 진양 韓醫院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腦를 形體는 腑를 닮고 作用은 臟을 닮았다고 하였다. “人始生은 先成精이며 精成以腦髓生”이라 하고, “腎生骨髓 通於腦”, “腦爲髓之海”라 하였다. (腦髓의 化生の 근원은 先天之精 즉 부모의 生殖之精인데 腎主生殖하므로 실제 腦髓의 형성과 발육은 腎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腦髓는 五穀의 津液으로 膏가 되며 骨空으로 滲入하며 補益腦髓한다”,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라고 하였다. (腦髓의 化生の 근원이 선천적인 生殖之精이라면 後天之精은 腦髓를 부단히 영양한다. 後天之精은 즉 五臟六腑之精으로 腎에서 藏한다.)

“頭는 諸陽之會로서 精明之府요”, “頭는 元神之官”이라 하여 비록 직접 腦를 말하지 않았지만, 大腦의 思考活動, 각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靈機記性在腦者는 因飲食生氣血 長肌肉 精汁之清者 化而爲髓 由脊骨上行入腦 名曰腦髓 鼻通於腦所聞香臭 歸於腦 兩耳通腦所聽之聲歸於腦 目系如線長於腦者乃祖神之也”라 하여 腦와 脊髓와의 관계 및 嗅覺, 聽覺, 視覺을 지배하는 腦機能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王)10)은 서양에서 들어온 解剖學에 기초하여 종래의 心藏神 이론을 반박하고, 腦가 인체의 생명 활동 및 정신 활동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 2) 心藏과 神의 關係<sup>4,5)</sup>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 “心藏神, 爲一身之君主 統攝七情”, “心者 五臟六腑之大主也, 精神之所舍也”라 하여 心이 인체 五臟六腑의 최고통수자이며, 핵심적인 장기로서 인체의 일체의 생명 활동을 통수하는 동시에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을 주관함을 말하였다.

(〈內經〉에서 말하는 神 또는 神明이란 생명 활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지만, 정신을 생명의 정화로서 생명과 동일시하는 東醫學의 특징적인 생명 인식에 의해 모든 정신활동 역시 생명을 추진하는 중추적인 장기인 心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肝藏魂 心藏神 脾藏意 肺藏魄 腎藏志”라 하여 정신의 작용을 五臟에 배속하였다.

(五神은 각 장부 기능과의 상관성에 따른 神의 別稱이며 궁극적으로는 神을 藏하는 心에서 통합하고 주관한다.)

“心在志爲喜…肝在志爲怒…肺在志爲憂…脾在志爲思…腎在志爲恐”으로 五種의 情緒를 五臟에 배속시켰다.

“任物者 謂之心”이라 하여 의제의 사물을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사유 활동이 모두 心에 의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入門><sup>22)</sup>에서는 血脈을 주관하는 有形之心 (血肉之心)과 藏神의 기능을 가진 無形之心(神明之心)으로 구분하여 역시 心藏神의 이론을 따랐다.

(이처럼 모든 정신 활동을 腦髓에 귀속시켜 인식하지 않고 心에 귀속시켜 인식한 데에는 東醫學의 독특한 이론 체제에 기인한 것이다.

첫째, 藏象學說에 의거하여 인체 내외의 모든 生命活動과 現象을 五臟의 기능 활동으로 귀납하여 인식하였으며, 이중 心은 五臟六腑의 大主로서 인체 생명 활동의 중추가 되므로 생명의 정화인 정신활동 또한 心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둘째, 인간의 精神活動을 腦髓라고 하는 국소의 기능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藏象學說에 의해 인간개체 전체의 有機的인 관계속에서 인식한 것이다.

## 3) 腎과 腦의 關係<sup>4,5)</sup>

“五臟所主 腎主骨”, “腎은 一身의 骨髓를 主管한다”라고 한것은 腎이 骨髓의 生長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腎은 骨髓를 생한다”, “諸髓皆屬於腦”, “腦爲髓之海”라고 하여 腎과 骨髓와 腦와의 상호관련을 말하고 있다.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腎이 강하게하는 역할로 여러가지의 다재다능하고 정교한 기술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반대로, 腎精이

虧損하여지면 骨髓가 空虛하여 腰腿酸軟 足痿無力 등의 病態가 나타나고, 髓海가 不足해짐에 따라 頭暈, 健忘, 失眠 등의 증상이 출현하며 심하면 思考하는 智力의 遲鈍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髓海有餘하면 몸이 가볍고 體力이 強健하여 그 정도가 저절로 초과하며, 髓海가 不足하면 腦轉, 耳鳴, 脛痠, 眩暈, 目無所見, 懈怠安臥한다.”고 하여 腦髓의 有餘, 不足에 의해 인체에 나타나는 病態를 표현하고 있다.

(腦髓는 腎精이 변화한 것으로 이에 의해 腦髓의 正常과 病態는 腎臟 精氣의 盛衰에 따라 진단되며, “腎은 骨髓를 生한다”는 관계에 의해 임상상 腦와 骨髓의 不足에 의해 일어난 어떤 病態를 대했을 때에는 치료에 있어서 補腎을 위주로 해야 한다. 이것이 腎이 충실하면 髓도 충실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로써 補腦와 補腎髓는 補腎의 범위내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 治健忘 및 補益益智方

<內經><sup>9,10)</sup>

<素問 診要經終論>

秋刺春分 病不已 令人惕然 欲有所爲 起而忘之。

(秋天때 春天에 응하는 部位에 잘못 刺鍼하여 肝氣受傷하면 肝傷即心失所養하고 心氣不足하여 忘한다고 楊)<sup>16)</sup>은 註解하였다.)

<素問 玉機眞藏論>

春脈太過 太過即令人善忘

(脈이 太過함은 實而強한 脈狀으로 陽氣有餘를 의미한다. 春에 陽氣有餘하면 肝陽上亢하고 上沖於頭腦하여 사람의 意識이 紊亂해지면서 善忘한다고 楊)<sup>16)</sup>은 註解했다.)

<素問 四時刺逆論>

秋刺經脈 血氣上逆 令人善忘

(秋天에는 皮膚에 刺鍼해야 하는데 만약 經脈에 刺鍼하면 血氣外越而逆於上하여 經脈의 氣血이 凌亂하면서 善忘한다고 楊)<sup>16)</sup>은 註解했다.)

冬刺肌肉 陽氣竭絕 令人善忘

(冬天에는 骨髓에 刺鍼해야 하는데 만약 肌肉에 刺鍼하면 內臟의 陽氣가 外로는 泄하고 內로는 竭하여 이로 인해 神失所養하고 神不足한면 善忘한다고 楊)<sup>16)</sup>은 註解했다.)

<素問 調經論>

血并于下 氣并于上 亂而善忘。

(血并于下하면 血并于下하여 善忘한다. 氣并于上하면 氣并于上하여 紊亂한다고 陳)<sup>28)</sup>은 註解하였다.)

<靈樞 本神篇>

腎盛怒而不止即傷志 志傷即喜忘

(喜忘은 腎志皆傷한 것이라고 陳)<sup>28)</sup>은 註解하였다.)

<靈樞 大惑論>

上氣不足 下氣有餘 腸胃實而心肺虛 虛即營衛留於下 久之不以時上 故善忘也。

<傷寒論譯註> <sup>7,31)</sup>

陽明證 其人善忘者 必有蓄血 所以然者 本有久瘀血 故令喜忘 屎雖硬 大便反易 其色必黑 宜抵當湯 下之。

(湯本)<sup>31)</sup>은 “血并于下 氣并于上 亂而喜忘”은 본래 久瘀血때문에 있는 것이라 했다. 또 “上氣不足 下氣有餘 久之不以時上 即善忘”이라 했으므로 陽明證에 善忘한 것은 “血隨氣行 俱并于下 故必有蓄血”이라고 했다. 蔡)<sup>7)</sup>는 병자가 오래도록 大便이 不通하고 자꾸 前言往事를 잊는 것은 下焦에 오랫동안 瘀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備急千金要方><sup>13)</sup>

孔子大聖枕中方(常服令人大聰), 開心散(治健忘)

菖蒲益智丸(主治 喜忘 恍惚 破積聚 止痛 安神 定志 聰明耳目).

養命開心益智方 - 乾地黄 人蔘 白茯苓 各二兩, 肉苁蓉 遠志 菟絲子 各三兩 蛇床子 二分

北平太守八味散 - 氣力强 志意足

天門冬 六分, 乾地黄 四分 桂心 白茯苓 各一兩, 石菖蒲 五味子 遠志 石葦 各三分

令人不忘方 - 石菖蒲 二分, 白茯苓 白茯苓 人蔘 各五分, 遠志 七分 日三夜 十五日後神良

治健忘方 - 天門冬 遠志 白茯苓 乾地黄 各等分 爲末 蜜丸 梧子大 酒服 二十九 至三十九

治好忘久服聰明益智方 - 龍骨 虎骨 遠志 各等分 又方 - 肉苁蓉 續斷 各二分, 遠志 石菖蒲 白茯苓 各三分 右五味治下篩酒服 方寸匕 日三 至老不忘

又方 - 七月七日取菖蒲酒服 三方寸匕 飲酒不醉

又方 - 常以甲子日取石菖蒲 一寸九節者, 陰乾百日, 治合下篩 服方寸匕, 日三, 耳目聰明不忘

又方 - 七月七日馬勃一外人蔘二兩末之蒸令氣 通夜欲臥, 服一刀圭, 盡知四方之事

又方 - 戊子日取東邊桃枝二七枚, 著臥牀中枕之, 不忘

又方 - 常以五月五日取東向桃枝, 日未出時作三寸 木人, 著衣帶中, 令人不忘

又方 - 丁酉日自至時買遠志, 裹著衣中 魚頭還未服 之, 不復忘

又方 - 七月七日取蜘蛛網, 著衣令中, 勿令人知, 不忘

<太平聖惠方><sup>15)</sup>

\* 補心益智及治健忘諸方

孔子大聖枕中方 (補心虛 治健忘), 遠志散 (補心定志 益智明目),

菖蒲圓 (補心益智 治健忘), 人蔘圓(補心益智 強氣助 神 令人體光潤)

茯神散方 - 補心虛 治健忘 久服聰明益智

白茯苓 三分, 熟乾地黄 一兩, 人蔘 龍骨 石菖蒲 各三分, 遠志去心 半兩, 天門冬去心 一兩 爲散 每一錢 以水一中盞 棗三枚 煎至六分 食前 溫服

(心은 精神之本이요 意志之根으로 常欲清虛 不欲昏 昧한다. 昏昧하면 氣濁하고 氣濁하면 心神亂하여 血脈不榮해진다. 氣血俱虛하고 精神離散한데 多憂 慮하면 耳目不聰하여 心智不利로 健忘이 된다고 했다.)

<聖濟總錄><sup>14)</sup>

\* 治健忘

治方) 安神定志丸, 桂心湯, 龜甲散, 遠志散, 開心丸, 延齡煮散, 七聖丸, 遠志丸, 白石英湯, 檀香丸, 烏犀丸, 養神丸, 山茅丸, 人蔘煮散, 化鐵丸

(本于心虛로 血氣衰少하면 精神昏憤하여 志가 動亂 하므로 多忘한다.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한데 愁 憂思慮로 傷心하면 喜忘한다고 했다.)

\* 補益強力益智方

(腎在骨 故腎憊即力劣. 心藏神 故心虛即多忘. 強力益 智 必補心腎, 心腎得所養 即力強而志益矣. 心腎合德 水火相濟 即精全神足.)

枸杞子丸... 育神氣 強力益智 及治風勞氣冷 美顏色 變髮

麥門冬丸... 補心育神 強力益智 兼止肺嗽 及腎藏風冷 遠志丸... 治眞元衰憊 耳焦面黑 精神不爽 補益血氣 強力益智

鹿茸丸... 專補虛治心 強力益智

大豆丸…補氣強力益智 斷穀不饑

遠志散…治健忘 補心氣 強力益智

菟絲子丸…補益真氣 強力益智

四神湯…專治一切冷氣 調順經絡 生精補氣 強力益智

遠志丸…強力益智延年

菖蒲丸…補元氣 強力益智

龜甲散…開心志 強力益智

龜甲 龍骨 遠志去心 石菖蒲 各等分 右四味  
爲散 每服一錢 溫酒調下 公心食前一

<三因方><sup>20)</sup>

治法, 治方)

小定志丸…治心氣不足 五臟不足 心者憂憂愁愁 不樂  
喜忘, 朝差暮劇 暮差朝發及因事有所大驚  
夢寐不詳, 發登高步險 以致神魂不安 驚悸  
怯恐

菖蒲益智丸…治喜忘恍惚 破積聚 止痛 安神 定志 聰  
明耳目

(脾主意與思하는데 意者記所往思며, 思卽兼心之所爲  
也이다. 脾에 병이 들면 意思가 不清하고 心神이 不  
寧하여 健忘하게 된다. 心力思量이 不來하는 것을  
常常喜忘이라고 한다.)

(陳)<sup>20)</sup>은 安神益智하는 약을 쓰되 湯藥보다는 丸方  
이 奏效하다고 했다. 또, 吳鞠堂의 說을 빌려 健忘  
은 神經之病으로 心이 腦로 통하므로 心氣不足者는  
或 腦에도 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世醫得效方><sup>20)</sup>

小定志圓…治心氣不足 五臟不足 心者憂憂愁愁 不樂  
忽忽喜忘 朝差暮劇 暮差朝 發及因事有所  
大驚 夢寐不詳

菖蒲益智圓…治喜忘恍惚 破積聚 止痛 安神 定志 聰  
明耳目

加味茯苓湯…治痰迷心包 健忘失事 言語如痴

天王補心丹…令心保神 益血固精 壯力強志 令人不忘

清三焦 化痰涎 祛煩熱 除驚悸 療咽乾  
口燥 育養心氣

<丹谿心法><sup>27)</sup>

治法, 治方)

寧志膏(和劑局方)…治心神恍惚 一時健忘

定志丸…治心氣不足 恍惚 多忘

壽星丸(和劑局方)…治心膽被驚 神不守舍 或痰迷心竅  
恍惚 健忘 妄言

歸脾湯(濟生方)…治思慮過制 勞傷心脾 健忘怔忡

朱雀丸(百一選方)…治心神不定 思多健忘

二丹丸…治健忘 養神定志 和血 內以安神 外華膝理

人蔘追志丸(太平聖惠方)…治氣不足 驚悸 健忘 神思  
不寧

(健忘은 精神短少者에 많고 痰이 있는 자에도 있다.  
心悸 怔忡 健忘은 모두 思憂過度로 心包를 손상한  
것으로 思慮過度는 병이 心脾에 있다고 했다.)

<普濟方><sup>26)</sup>

\* 補益強力益智方 이론은 <聖濟總錄><sup>14)</sup>을 그대로  
원용하였다.

治方에 있어서도 枸杞子丸, 麥門冬丸, 遠志丸, 鹿茸  
丸, 大豆丸, 菟絲子丸, 四神湯, 遠志散, 菖蒲丸 등은  
<聖濟總錄><sup>14)</sup>과 같다. 그 외에

茯苓散…用主輕身益氣 強骨補髓不足 能使陽氣強盛  
肉茯苓 五味子 遠志 甘草 各一片, 生地黄  
三十片, 慎火草 楮子乾漆 各二升 右八味以  
地黃汁浸一宿 出暴乾 復爲散 空心酒服方寸  
早午晚 日三服

<醫學正傳><sup>19)</sup>

定志丸…治心氣不足 恍惚 多忘 及怔忡 驚悸

歸脾湯…治思慮過度 勞傷心脾 健忘 怔忡

<醫學入門><sup>22)</sup>

引神歸舍丹…怔忡 久即 健忘이니 心脾血少하여 神虧 清氣不足하고 痰火濁氣가 上攻한대 主之한다.

定志丸…所稟陰魄이 不足하여 善忘한 데에는 大補 氣血하며 此方으로 主之한다.

加減固本丸…老年神衰者의 健忘에 主之한다.

驚悸, 怔忡, 健忘 三證 通用方으로 歸脾湯, 仁熟散, 夢授天王補心丹, 壽星丸, 參朮丸을 쓴다.

(又有健忘非質鈍이오 精神短少 痰相攻이라하여 健忘이 원래 머리가 愚鈍해서가 아니라 精神短少하고 痰이 相攻하기 때문이라 했다.)

<東醫寶鑑><sup>8)</sup>

原因, 治法)

<靈樞大惑論> 上氣不足 下氣有餘하여 腸胃는 實하며 心肺가 虛하므로 營衛가 下焦에 久留하여 上循하지 못하므로 善忘한다.

<素問調經論> 血并于下氣并于上亂하면 喜忘한다.

<靈樞本神篇> 腎盛怒而不止 卽傷志 傷志 卽喜志.

<丹溪> 精神短少者에 많고 痰이 있는 者에도 있다.

<戴人> 健忘은 病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愚頑無知한 것이 아니다.

<醫鑑> 心脾二經을 주요 관건으로 보았다. 心脾는 思를 주로 맡는데 思慮過多하면 心이 傷하고 皮가 耗損하여서 神을 지키지 못하며, 脾가 傷하면 胃氣가 傷하여 쓸데없는 생각을 되풀이하게 된다.

治法은 必先養心血 理脾土 하여 癡神定智之劑로 調理하고 淸閑한 곳과 安樂한 가운데 처하고 모든 憂慮를 끊고 六淫과 七情을 멀리하게 되면 自然治療 될것이다.

<入門> 怔忡이 오래되어 健忘이 되는 것은 心脾二經에 血少하고 神虧한 것이니 治法은 引神 歸舍해야 한다.

治方)

引神歸舍丹(治心風健忘)

定志丸(治心氣不足 忽忽喜忘 神昏不安 驚悸 恐怯 寐不祥)

開心散(治健忘 以定志丸 去白茯神)

加味茯苓湯(治痰迷心包, 健忘失事言語如痴人)

聰明湯(治多忘 久服能日誦千言)

歸脾湯(治憂思勞傷心脾 健忘 怔忡)

加減補心湯(治諸虛健忘)

降心丹(治心腎不足 健忘)

壯元丸(補心生血寧神定志)

加味壽星丸(治痰涎留于心包精神不守)

孔子大聖枕中方(服之令人聰明)

朱子讀書丸 - 治健忘

白茯神 遠志薑製 各一兩, 人蔘 陳皮 各七錢半, 石菖蒲 當歸 各五錢, 甘草 二錢半 爲末 麵糊和丸 綠豆大 朱砂爲衣 臨臥以燈心煎湯下 五十丸

加減補心湯 - 諸虛健忘

陳皮 白茯苓 當歸 白芍藥 生地黄 遠志薑製 麥門冬 酸棗仁炒 黃柏 知母 并酒炒 各午錢, 人蔘 白朮 石菖蒲 甘草 各三錢 分二貼 水煎服

<六科準繩><sup>17)</sup>

治法)

安心養血한다. 痰으로 인한 것은 일시적인 병으로 病邪가 獨痰은 아니다. 心은 諸火熱로 인하여 傷亂其心하여 健忘이 되는 것으로 <內經>에서 原因을 여러 가지로 논한 바와 같이 치료에 있어서도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해야 한다.

(사람의 氣稟이 不同한데 得氣之淸하면 心之知覺者 明하고, 得氣之濁하면 心之知覺者 昏하다. 心之昏

하면 精神既短하므로 傷心하고 不能追憶其事한다.  
水清明而火昏濁하므로 上善若水 下愚若火한데 稟  
質이 混濁한자는 不耐于事物之擾하고 擾即失其靈  
하여 健忘한다고 했다고 했다.)

<類經><sup>23)</sup>

<靈樞 大惑論>의 “上氣不足 下氣有餘,腸胃實而心肺  
虛 虛即營衛留於下 久之不以時上.”의 健忘의 병리기전  
에 대하여 張<sup>23)</sup>은 “下氣有餘”가 “上氣不足”에 비교했  
을 때 “有餘”한 것이지 下氣가 정말 實한 것은 아니라  
고 하였으며, 營衛留於下하면 神氣가 不能相周하여 善  
忘하므로 善忘은 결국 陽衰於上의 징후라고 해석하였  
다.

<醫宗必讀><sup>21)</sup>

治法, 治方)

補腎而使之時上하고 養心而使之善下하면 神氣가 清  
明해지고 志意가 常治된다.

思慮過度… 歸脾湯

精神衰倦… 人蔘養榮湯, 寧志膏

痰迷心竅… 導痰湯, 壽星丸

心腎不交… 朱雀丸

(內經을 살펴보면 健忘의 근원에 대하여 모두 心腎  
不交에 原因을 두고 있다. 心不下交于腎하면 濁火  
亂其神明하고, 腎不上交于心하면 精氣因而不用하므  
로 火居上하여 痰이 되고 水居下하여 躁를 生한다고  
했다.)

<張氏醫統><sup>24)</sup>

治法, 治方)

千金茯神湯(心氣不足 妄有見聞 心悸躁動 恍惚不定)

歸脾湯(思慮過度 病在心脾, 狹虛痰者 加 薑汁 竹瀝)

人蔘養胃湯, 遠志丸(精神短少者)

導痰湯 加 木香(痰迷心竅)

天王補心丹(上虛下熱)

六味丸 加 五味子(心火不降 腎水不升 神明不定而健  
忘)

四君子 去 白朮 加 石菖蒲 遠志 朱砂(心氣不定 恍惚  
多忘)

辰砂妙香散(心氣不足 精神恍惚 少睡 夜多盜汗 怔忡  
健忘)

抵當丸(瘀積於內而 善忘如狂)

(上氣有餘 下氣不足, 心腎不交 心不下交於腎 濁火亂  
其神明 腎不上交於心 精氣伏而不靈 火居上 即因而  
爲痰 水居下 即因而生躁 躁擾不寧 是以健忘也)

<醫學心悟><sup>25)</sup>

治法, 治方)

健忘症은 心腎不交로 인한 것이므로 補해야 한다.  
歸脾湯, 十補丸 主之. 火動으로 인하여 痰이 心包에 客  
한 때에는 清心開竅한다. 二陳湯 加 薑汁 竹瀝, 朱砂安  
神丸

十補丸 - 黃芪 白朮 各二兩, 白茯苓 山藥 各一兩半,  
人蔘 一兩, 熟地黃 三兩, 當歸 白芍藥 各一  
兩, 山茱萸 杜仲 續斷 各二兩, 酸棗仁 二兩,  
遠志 一兩, 五味子 龍骨 各七錢半 金櫻膏爲  
丸 每服四錢

(“經云, 腎者 作強之官 技巧出焉, 心者 君主之官 神明  
出焉”이라 했다. 腎主智한데 腎虛即智不足하면 善  
忘한다. 또, 心藏神한데 神明不充하 면 遺忘한다  
고 했다.)

<醫門寶鑑><sup>6)</sup>

治法)養心血, 理脾氣, 寧神, 化痰

治方)

歸脾湯(治憂思勞傷心脾), 聰明湯(治多忘)

天王補心丹(治心虛怔忡驚悸) 壯元丸(治心血不足)

定志丸(治心氣不足), 降心丹(治心腎不足)  
 加味茯苓湯(治痰迷心包), 加味壽星丸(治痰涎留心包)  
 引神歸舍丹(治心風健忘)

(健忘은 일에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고 言談을 중잡지 못하는 것이다. 思慮로 心脾를 損傷하면 神血이 耗損되고 氣鬱成痰하면 心脾之氣가 不舒하여 된다 고 했다.)

<濟衆新篇><sup>1)</sup>

治法, 治方)

引神歸舍丹... 治心風健忘

定志丸... 治心氣不足 忽忽喜忘 神昏不安 驚悸 恐怯 夢寐不詳

歸脾湯... 治憂思勞傷心脾 健忘 怔忡

(일에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이유는 精神短少者나 痰이 있는 자이다. 思慮過多로 心傷하면 血耗散 神不守舍한다. 脾傷하면 胃氣가 衰하고 근심하게 된다. 治法은 養心血 理脾土한다. 痰迷心竅로 健忘한데에는 瓜蒌枳實湯을 加減한다. 원래 陰魄이 不足하여 善忘하면 定志丸을 쓴다. 怔忡이 오래되어 健忘한 것은 心脾血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 治健忘方

(上記한 19種의 文獻 중에서 2回以上 수록된 處方의 方劑를 調査하였다.)

加減茯苓湯<sup>5,8,21)</sup> - 治痰迷心包 健忘失事 言語如痴人  
 人蔘 半夏法製 陳皮 各一錢半, 白茯苓 香附子 益智仁 各一錢, 甘草 五分

加味壽星丸<sup>6,8)</sup> - 治痰涎留心包 精神不守 健忘恍惚  
 或風涎

大半夏薑製 六兩, 天南星 三兩, 朱砂水飛 一兩, 琥珀 白礬枯 各五錢, 珍珠 一錢 爲末 薑汁麵糊 梧子大 朱砂爲衣 薑湯下 三十九

降心丹<sup>6,8)</sup> - 治心神不足 健忘

熟地黄 當歸 天門冬 麥門冬 各三兩, 白茯苓 人蔘 山藥 白茯苓 遠志薑製 各 二兩, 肉桂 朱砂 各五錢 爲末 蜜丸 梧子大 人蔘湯下 三十九

開心散<sup>8,13)</sup> - 治健忘

定志丸 去 白茯苓 爲末 每 二錢 湯飲任下

孔子大聖枕中方<sup>8,13,19)</sup> - 服之令人聰明

龜板 龍骨 遠志薑製 石菖蒲 各等分 爲末 酒調下 二錢 日三服

枸杞子圓<sup>18,26)</sup> - 枸杞子 覆盆子 車前子 生乾地黄 地骨皮 續斷 何首烏 巴戟天 菊花 白朮 石菖蒲 遠志 細辛 牛膝 菟絲子 爲末 梧子大 每日 空心 酒下 十九 至二十九

歸脾湯<sup>1,6,8,19,21,22,24,25,27)</sup> - 治憂思勞傷心脾 健忘怔忡

當歸 龍眼肉 酸棗仁炒 遠志薑製 人蔘 黃芪 白朮 白茯苓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 三分 作貼 薑五片 棗二枚 水煎服

鹿茸丸<sup>14,26)</sup> - 鹿茸 枸杞子 三兩, 白茯苓 人蔘 各一兩半, 乾薑二兩, 肉桂 半兩, 遠志去心 三錢 爲末 梧子大 每日食前 鹽湯酒服 十九至二十九

大豆丸<sup>14,26)</sup> - 大豆黃卷 龍骨 白茯苓 黃蠟 各一兩半, 蜜 二升, 右前四味爲末 入蜜蠟 丸和鷄子黃大 每日空心 酒下一丸 食後再服

導痰湯<sup>21,24)</sup> - 半夏 南星炮 橘皮 枳殼 赤茯苓 甘草 各一錢

寧志膏<sup>21,27)</sup> - 人蔘 酸棗仁炒 各一兩, 辰砂 五錢, 乳香 二錢半 爲末 蜜丸 彈子大 每服一丸 薄荷湯送下

麥門冬丸<sup>14,26)</sup> - 麥門冬 二兩半, 天門冬 一兩三錢, 白



茯神 杜仲炒 柏子仁 石菖蒲 枸杞子  
生乾地黄 百部根 各一兩, 白茯苓 人  
蔘 肉苁蓉 貝母 防風 五味子 丹蔘  
各一兩一錢, 遠志半兩 爲末 蜜丸 梧  
子大 每日空心 二十九

四神湯<sup>14,25)</sup> - 附子 木香 各一兩, 白茯苓 人蔘 各半  
兩 薑三片 棗二枚 葱白二寸 早晚各一  
服

壽星丸<sup>21,22,27)</sup> - 天南星 一斤, 朱砂 二兩, 琥珀 一兩  
右用生薑汁麵糊爲丸 梧子大 每服三  
十九至五十九 煎石菖蒲人蔘湯下

遠志散<sup>14,15,16)</sup> - 遠志去心 黃連 各二兩 白茯苓 二兩  
半 石菖蒲 人蔘 各一兩半 爲散 每食  
後溫酒調下一錢

遠志丸<sup>14,24,26)</sup> - 遠志去心 山藥 柏子仁 巴戟天去心  
續斷 杜仲 各二兩 菟絲子 荊實 山  
茱萸 五味子 各二兩半 肉苁蓉 牛膝  
各四兩爲末 蜜丸 梧子大 每服三十  
九 空心溫酒下 若體疲加柏子仁, 精  
冷加 五味子, 陽衰加續斷各一倍

引神歸舍丹<sup>1,6,8,22)</sup> - 治心風 健忘  
南星牛膽製 二兩, 朱砂 一兩, 附子童便浸泡 七錢  
爲末 猪心血和糊作丸 梧子大

壯元丸<sup>6,8,15)</sup> - 補心生血 寧神定志 且憂悶勤政勞心  
燈窓讀書辛苦 并健忘 怔忡不寐 及不  
善記而多忘者服之 遠志薑製 龍眼肉  
生乾地黃酒洗 玄蔘 朱砂 石菖蒲 各  
三錢, 人蔘 白茯苓 當歸酒洗 酸棗仁  
炒 麥門冬 柏子仁 去油 各二錢 爲末  
猪心血和丸 綠豆大 金箔爲衣 米湯下  
二十九

定志小丸<sup>19,29)</sup> - 石菖蒲 遠志薑製 各二兩, 白茯苓 白  
茯苓神 人蔘 各三兩, 辰砂 一兩爲衣  
爲末 蜜丸 梧子大

定志丸<sup>1,6,8,18,22,27)</sup> - 治心氣不足 忽忽喜忘 神昏不安  
驚悸恐怯 夢寐不祥  
人蔘 白茯苓 白茯苓神 各三兩, 石菖蒲 遠志 各二兩,  
朱砂 一兩, 爲末 蜜丸 梧子大 米湯下五十九

朱雀丸<sup>21,27)</sup> - 沈香 一兩, 白茯苓神 四兩 爲末 蜜丸 小  
豆大 每服三

天王補心丹<sup>6,20,22,24)</sup> - 寧心安神 益血補精 壯力益智  
令人不忘 濟三焦 化痰涎 祛煩熱 除  
驚悸 療咽乾口燥  
熟地黄 人蔘 白茯苓 遠志去心 石菖蒲 玄蔘 柏子仁  
桔梗 天門冬去心 丹蔘 酸棗仁炒 甘草炙 麥門冬去  
心 百部根 杜仲炒 白茯苓神 當歸 五味子 各等分 爲  
末 蜜丸 一兩作十圓 每服一圓

菖蒲益智丸<sup>20,29)</sup> - 石菖蒲 遠志 人蔘 桔梗 牛膝 各五  
分, 桂心 三分, 白茯苓 七分, 附子  
四分 右八味 蜜丸 梧子大 一服七  
丸 至二十九

菖蒲丸<sup>14,15,16)</sup> - 石菖蒲 蒼朮 各等分 右米浸三宿 控  
乾 再用酒浸一宿 爲末 蜜丸 梧子大  
每服二十九至四十九 空心 鹽湯下  
日三服

聰明湯<sup>6,8)</sup> - 治多忘 久服日誦千言  
白茯苓神 遠志以甘草水泡去骨薑汁製 石菖蒲 各  
等分 每三錢水煎服 或爲末 每二錢茶湯點服  
日三

菟絲子丸<sup>14,26)</sup> - 菟絲子酒浸 石菖蒲 遠志去心 地骨皮  
生乾地黄 各二兩爲末 蜜丸 梧子大  
每服三十九 茶酒下

\* Table 1. 健忘 處方 의 頻度數

(19種의 文獻 中에서 2回 이상 記載된 處方 의 頻度  
數를 調査하였다.)

No	處方名	頻度數
1	歸脾湯 <sup>1,6,8,19,21,22,24,25,27</sup>	9
2	定志丸 <sup>1,6,8,18,22,27</sup>	6
3	天王補心丹 <sup>6,20,22,24</sup> , 引神歸舍丹 <sup>1,6,8,22</sup> 加減茯苓湯 <sup>6,8,21</sup> , 壯元丸 <sup>6,8,15</sup>	4
4	孔子大聖枕中方 <sup>8,13,19</sup> , 遠志丸 <sup>14,24,26</sup> 壽星丸 <sup>21,22,27</sup> , 菖蒲益智丸 <sup>13,20,29</sup> 遠志散 <sup>14,15,16</sup> , 菖蒲丸 <sup>14,15,26</sup>	3
5	加味壽星丸 <sup>6,8</sup> , 降心丹 <sup>6,8</sup> , 開心散 <sup>8,13</sup> , 鹿茸丸 <sup>14,26</sup> , 大豆丸 <sup>14,26</sup> , 導痰湯 <sup>14,24</sup> , 寧志膏 <sup>21,27</sup> , 麥門冬丸 <sup>14,26</sup> 四神湯 <sup>14,25</sup> , 定志小丸 <sup>19,29</sup> , 朱雀丸 <sup>21,27</sup> , 聰明湯 <sup>6,8</sup> , 菟絲子丸 <sup>14,26</sup> , 枸杞子圓 <sup>18,26</sup>	2

\* Table 2. 健忘 處方 藥物의 出現 頻度數  
(Table 1 의 處方 中에서 2回 이상 記載된 藥物의 頻度數를 藥物 效能別로 구분하였다.)

藥物分類	藥 物
補氣藥	人蔘(12), 白茯苓(10), 甘草(5), 白朮(2), 山藥(2)
補血藥	當歸(4), 熟地黃(2), 龍眼肉(2)
補陽藥	杜沖(3), 菟絲子(3), 肉蓯蓉(3), 續斷(3)
補陰藥	麥門冬(4), 枸杞子(3), 天門冬(3), 五味子(3)
安神藥	遠志(14), 白茯苓(11), 石菖蒲(13), 柏子仁(4), 酸棗仁(3), 龍眼肉(2), 朱砂(7), 龍骨(2), 琥珀(2)
化痰藥	南星(4), 半夏(3), 桔梗(2), 百部根(2)

\* Table 3. 製法上의 分類  
(Table 1 에 記載된 治方을 기준으로 分類하였다.)

製法	處 方	百分率
丸,丹	定志丸, 天王補心丹, 引神歸舍丹 壯元丸, 孔子大聖枕中方, 壽星丸, 菖蒲益智丸, 菖蒲丸, 加味壽星丸, 降心丹, 鹿茸丸, 大豆丸, 麥門冬丸, 定志小丸, 朱雀丸, 菟絲子丸, 枸杞子圓, 寧志膏	72 %
湯 劑	歸脾湯, 加減茯苓湯, 孔子大聖枕中方, 四神湯, 聰明湯	20 %
散 劑	遠志散, 開心散	8 %

### III. 考 察

<內經>에는 健忘의 病理機轉에 대하여 몇가지로 설명하였다. <眞要經終論>에서는 肝氣受傷하면 心失所養 心氣不足하여 忘한다고 했다. <四時刺逆論>에서는 血氣外越而逆於上하여 氣血이 亂亂해지면서 善忘한다고 했고, 또 內臟의 陽氣가 外로 泄하고 內로는 竭하여 神失所養이 되어 善忘한다고 했다. 以上の 문헌에서는 刺鍼시에 誤刺하여 발생한 病證을 논한 것이다. <玉機眞藏論>에서는 陽氣有餘하면 肝陽上亢하고 上沖於頭腦하여 善忘한다고 했다. <調經論>에서는 血并于下 氣并于上하면 善忘한다고 했다. <本神篇>에서는 腎盛怒하면 腎志皆傷하여 喜忘한다고 했다. <大惑論>에서는 上氣不足 下氣有餘하면 腸胃實而心肺虛하고 虛即營衛留於下로 久之不以時上하여 善忘한다고 했다.

陳)<sup>30</sup>은 <神農本草經>의 365味の 藥物 中에 「益智」작용이 있는 藥物이 76味, 「明目」, 「聰耳」작용이 있는 藥物이 43味, 「強記」, 「不忘」작용이 있는 藥物이 26

味, 「增智慧」, 「先知」작용이 있는 약물이 13味, 「養精神」, 「保神」, 「養神」, 「安魂魄」 작용이 있는 약물이 26味, 「通利利竅」 작용이 있는 약물이 11味, 「心」에 작용하는 약물이 7味, 「腦」에 작용하는 약물이 2味가 수록되었다고 했다.

傷寒論에서는 陽明證에 善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本有久瘀血하여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秦<sup>7)</sup>는 下焦의 蓄血관계로 喜忘 如狂 發狂 등의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병리는 소상히 알 수 없으나, 心은 主血하고 藏神한다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瘀血의 장애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孫<sup>13)</sup>은 好忘方에서 孔子大聖枕中方, 令人不忘方, 開心散, 萸萸益智方, 養命開心益智方, 北平太守八味散方 등 健忘의 治法과 治方에 대해서記載하였다. 또한, 單方으로서 石萸萸, 桃枝, 遠志, 麻, 蜘蛛網에 대해서도記載하였는데 약물을 服用하는 방법외에 桃枝를 베개에 넣고자면 不忘한다고 하였으며, 한편 桃枝, 遠志, 麻, 蜘蛛網등을 單方으로 의복의 띠속에 넣고 있으면 不忘한다고 하였다.

<太平聖惠方><sup>15)</sup>에서는 氣血俱虛 精神離散한데 多憂慮하면 耳目不聰하여 心智不利로 健忘이 된다고 하였으며, 治法에 있어서 補心益智하면서 治健忘하고, 治方으로 遠志散, 人參圓, 茯神散方 등을 새롭게記載하였다.

<聖濟總錄><sup>14)</sup>에서는 心虛로 血氣衰少하거나 愁憂思慮로 傷心하면 喜忘한다고 하여 健忘에 대한 治方を記載하였다. 뿐만 아니라 補益強力益智方を記載하였는데 腎主骨 心藏神하므로 強力益智하기 위해서는 補心腎해야 한다고 하여 心腎相交 水火相濟에 대해 논하였다.

陳<sup>20)</sup>은 脾가 意와 思를 주관하고 心도 思를 겸하여 주관하므로 健忘에 心脾論治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健忘症에 安神益智하는 약을 쓰되 湯藥보다는 丸方이 奏效하다고 하여 小定志丸, 萸萸益智丸 二方を記載

하였다. 한편, <吳鞠堂>의 說을 인용하여 健忘은 神經之病으로 心이 腦로 통하므로 心氣不足者는 曠 腦에도 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危<sup>20)</sup>는 健忘의 治方으로 小定志圓, 萸萸益智圓, 加味茯苓湯, 天王補心丹을記載하였다.

朱<sup>27)</sup>는 健忘이 精神短少者에 많고 痰이 있는 자에도 있다고 하였으며, 驚悸 怔忡 健忘은 모두 思慮過度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朱<sup>28)</sup>는 補益強力益智方으로써 <聖濟總錄><sup>14)</sup>의 辨證論治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治方 중에서 茯苓散을 추가하였다.

虞<sup>19)</sup>는 健忘의 治方으로 定志丸과 歸脾湯을記載하였다.

李<sup>22)</sup>는 健忘의 원인이 精神短少하거나 痰相攻하여 된다고 했다. 怔忡이 오래되어 健忘이 된데에는 引神歸舍丹, 老年神衰者의 健忘에는 加減固本丸을記載하였다. 또, 所稟陰魄이 부족하여 善忘한데에는 定志丸으로 大補氣血하라 했다.

許<sup>8)</sup>는 健忘의 병리기전에 대하여 역대 의가들의 주장을 많이 인용하였다. <內經> 중에서는 <調經論>의 “血并于下 氣并于上 亂而喜忘”과 <本神篇>의 “腎盛怒而不止 即喜忘”과 <大惑論>의 “上氣不足 下氣有餘 善忘”등을 인용하였다. 한편, 朱<sup>33)</sup>의 “健忘由精神短少者 亦有痰者”와 李<sup>29)</sup>의 “怔忡久 即健忘”과 <古今醫鑑>의 心脾二經主治論을 인용하였다.記載된 治方を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먼저 心病으로 心風에는 引神歸舍丹, 心氣不足에는 定志丸을 인용하였다. 心腎不足에는 降心丹을 인용하였다. 痰病으로는 痰迷心包에 加味茯苓湯, 痰涎에는 加味壽星丸을 인용하였다. 諸虛로 인한 健忘에는 加減補心湯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健忘에 聰明, 寧神, 定志작용이 있는 治方으로서 聰明湯, 朱子讀書丸, 壯元丸, 開心散, 孔子大聖枕中方 등을記載하였다.

王<sup>17)</sup>은 사람의 氣稟이 不同하며, 만약 氣가 濁하면

心の知覺이 昏하여 傷心하므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편, 心은 諸火熱로 인하여 傷亂其心하여 健忘이 되므로 그 원인에 따라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또, 痰으로 인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病邪가 獨痰은 아니라고 했다. 治法은 安心養血을 위주로 한다고 했다.

張)<sup>23)</sup>은 <大惑論>의 “上氣不足 下氣有餘” 이론에 대하여 註解하면서 善忘은 결국 陽衰於上의 징후라고 했다.

李)<sup>21)</sup>은 <內經>의 健忘說에 대해 健忘의 근원이 모두 心腎不交라고 규정하여 補腎하여 心을 돕고, 補心하여 腎을 도우면 神氣가 淸明해진다고 했다. 心腎不交의 治方으로 朱雀丸을 記載하였다.

張)<sup>24)</sup>은 上氣不足 下氣有餘한데에는 天王補心丹으로 主治하고, 心腎不交에는 六味丸 加 五味子로 主治한다고 했다.

程)<sup>25)</sup>도 健忘症은 心腎不交로 인한 것으로 歸脾湯, 十補丸으로 補를 위주로 한다고 했다. 또, 痰으로 인한 경우에는 二陳湯 加 薑汁 竹茹나 朱砂安神丸으로 主治한다고 했다.

周)<sup>6)</sup>은 思慮로 心脾를 傷하거나 氣鬱成痰하여 心脾之氣가 不舒하여 健忘이 되므로 治法은 養心血, 理脾氣, 寧神, 化痰하라고 했다.

康)<sup>1)</sup>은 健忘의 원인에 대하여 李)<sup>20)</sup>의 이론을 따라 精神短少者 亦有痰, 陰魄不足, 怔忡久即健忘등을 說하였으며 그 외에 思慮過多로 인한 心傷, 痰迷心竅 등을 說하였다. 治方으로는 心脾血少에 歸脾湯, 陰魄不足에 定志丸, 痰迷心竅에 瓜囊枳實湯, 心風健忘에 引神歸舍丹 등을 記載하였다.

東醫學에서는 西醫學의인 腦의 生成이나 機能面에 대해 독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東醫學 이론을 바탕으로 治療面에 있어서도 일정한 치료 체계가 세워져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記憶에 대한 健忘疾患의 치료는 文獻上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東醫學의인 腦의 개념을 조사하고, 문헌을 통해 健

忘의 治法과 治方을 고찰하면서 健腦의 방법을 辨證論治上 몇가지로 大別해 볼 수 있었다.

腦를 기능적인 면에서 볼때 이러한 腦의 기능을 東醫學에서는 心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心藏神”이나 “心者 精神之所舍也”, “所以任物者謂之心”이라 하여 모든 생명활동 및 정신활동을 心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養心 및 益智에 대한 治療는 安心神, 補心血, 益心氣, 淸心熱 등의 治法을 통해 이루어졌다. “心主神明”하므로 遠志, 白朮神, 石菖蒲, 朱砂, 柏子仁, 酸棗仁, 龍眼肉, 龍骨, 琥珀 등의 安神之劑가 가장 많이 쓰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 “心主血脈”하므로 當歸, 熟地黃, 龍眼肉 등의 補血 및 養心血之劑가 多用되었다. “氣能生血”하므로 養心血하기 위해서 人蔘, 山藥 등의 補氣 및 益心氣之劑를 多用하였다. 한편, 淸心熱之劑는 熱邪가 上擾心包할때 쓰였는데 黃連, 地骨皮, 知母 등이 佐使藥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心이나 心包에 痰이 客하였을 때 化痰藥을 兼用하였는데 南星, 半夏, 桔梗, 百部根 등이 대표적으로 쓰인 化痰劑였다. 病理機轉上 心氣不足으로 인한 病證에 대해 治方이 많았으며, 定志丸, 千金茯神湯, 辰砂妙香散, 四君子 去白朮 加石菖蒲, 遠志, 朱砂 등의 治方이 있었으며, 이 중 定志丸에 대해서는 李)<sup>22)</sup>와 康)<sup>1)</sup>은 所稟陰魄不足에 大補氣血의 治方으로 간주하였다. 精神衰乾하거나 精神短少한데에는 遠志丸, 人蔘養榮湯, 寧志膏 등을 기재하였다. 痰으로 인한 心病證에는 痰迷心包나 痰迷心竅에 導痰湯, 壽星丸, 加味壽星丸, 加味茯苓湯 등이 수록되었다. 心風症에는 引神歸舍丹이 기재되었다.

腦를 생성면에서 볼때 腦의 生成이나 滋養에 대해 東醫學에서는 腎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腎藏精”, “腎生骨髓”, “腦爲髓之海”라 하여 腦髓의 化生의 근원을 腎으로 보았으며, 출생 후에는 腦가 五臟六腑의 後天之精에 의해 滋養되지만 이러한 五臟六腑之精 또한 腎에서 藏하므로 결국 腦髓는 腎에 의해

주관이 된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補腎 및 補精함으로써 補腦益智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약물 중에서는 杜仲, 菟絲子, 肉蓯蓉, 續斷 등의 補腎陽之劑와 枸杞子, 五味子, 天門冬 등의 補腎陰之劑가 多用되었고, 治方으로는 六味地黃丸이나 左歸丸, 右歸丸 등이 유효할 것으로 思慮된다.

東醫學에서는 藏象學說에 기초하여 臟腑가 相生, 相剋하면서 상호협조, 상호억제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認知過程에 대해서도 東醫學에서는 五志, 七情으로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즉, 五志七情을 五臟에 배속하여 “心藏神 主喜, 肝藏魂 主怒, 脾藏意 主思, 肺藏魄 主悲, 腎藏志 主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개념에서 볼때 腦에 영향하는 臟은 心과 腎만이 아니라, 그외 肝, 脾, 肺 역시 일정한 작용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 脾는 “脾藏意 主思”하면서 사람의 意識, 記憶, 思考 등에 관여하는 臟으로 사유활동 과정에서 思慮過多로 야기되는 病證에 대해 心과 함께 心脾病證으로 辨證하여 心脾論治를 함으로써 치료 과정에 많이 記載되었다. 歸脾湯이 대표적인 治方으로 본방은 健忘症에 가장 많이 多用되었으며, 陳)<sup>29)</sup>, 朱)<sup>27)</sup>, 周)<sup>6)</sup> 등이 心脾論治를 강조하였다. 한편, 心과 腎의 관계에 있어서도 心腎相交 水火相濟의 상호협조 관계속에서 心腎不交로 야기되는 病證에 대해 程)<sup>25)</sup>은 內經에 記載된 健忘의 근원이 모두 心腎不交到 기인한 것이라 하였으며, 張)<sup>24)</sup>도 健忘의 원인에 心腎不交를 강조하였다. 治方으로는 壯元丸, 朱雀丸, 六味加 五味子 등이 수록되었다.

健忘의 原因 중에 <大惑論>의 “上氣不足 下氣有餘”論이 후세 의가들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하였는데 7,8,23,25), 이것의 해석에 있어서 傷寒論 學者들은<sup>7,31)</sup> 蓄血로 보았고, 張)<sup>23)</sup>은 “陽衰於上”의 징후로 보았다. 治方에 天王補心丹이 있는데 張)<sup>24)</sup>은 “上虛下熱”에 治하라 했는데 이는 心腎不交와 상통하는 의미로 보인다.

治方に 있어서 丸, 丹이 湯劑나 散劑보다 훨씬 많이 등장하였으며, 陳)<sup>29)</sup>은 丸, 丹이 湯劑보다 效果가 더욱 좋다고 하였다.

孫)<sup>13)</sup>은 單方으로 遠志, 石菖蒲, 桃枝, 麻, 蜘蛛網 등으로 의복의 요대 속에 넣는다거나 베게에 넣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太平聖惠方><sup>15)</sup>, <聖濟總錄><sup>14)</sup>, <普濟方><sup>26)</sup>에서는 健忘症 외에 補心益智 또는 補益強力益智方을 수록하였는데 비록 분량이 많지는 않으나 補法을 통하여 益智을 시키려고 한 의도로 보여지며 益智에 대한 개별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思慮된다.

## V. 結 論

31種의 文獻을 기초로 腦에 대한 東醫學的 觀點을 조사하고, 健忘을 중심으로 한 健腦의 治法과 治方에 대한 文獻 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健腦法은 補心과 補腎이 중요시 되었으며, 臟腑 相互間에는 心脾 및 心腎을 兼治하는 治法이 多用 되었으며, 補益藥과 安神藥, 化痰藥 등이 많이 응용되었다.
2. 治方 중에서는 歸脾湯, 定志丸, 天王補心丹, 引神歸舍丹 등이 多用되었다.
3. 製法에 있어서는 丸, 丹이 湯劑보다 많이 쓰였고, 單味方으로는 遠志, 石菖蒲, 桃枝, 麻, 蜘蛛網 등이 記載되었다.

## VI. 參 考 文 獻

1.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82, pp.69-71, pp.289-291.

2. 具本泓 外：東醫心系內科學，서울，書苑堂，1982，pp.22-41.
3. 金正鎮：生理學，서울，高文社，1986，pp.217，226-232.
4. 金完熙 外：東醫生理學，서울，慶熙大學校出版局，1993，pp.279-280，pp.325-326，pp.382-386.
5. 金完熙 外：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1986，pp.169-170，p 286.
6. 周命新：醫門寶鑑，서울，醫聖堂，1988，pp.172-173.
7. 蔡仁植：傷寒論譯註，서울，高文社，1987，pp 177-178.
8. 許 淩：東醫寶鑑，서울，南山堂，1988，p 98，p 201，p 203，p 213，pp.651-652.
9. 洪元植：精校皇帝內經素問，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5，p 36，p 43，p 118，p 124.
10. 洪元植：精校皇帝內經靈樞，서울，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1985，p 69，p 343.
11. 洪彰義：小兒科學，서울，大韓教科書株式會社，1991，pp.532-593.
12. 黃義完 外：東醫精神醫學，서울，現代醫學書籍社，1987，pp.606-607.
13. 孫思邈：秘急千金要方，서울，大成文化社，1989，pp.265-266.
14. 宋/政府：聖濟總錄(上)，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7，pp.822-824，3041-3042.
15. 宋/太宗命 撰：太平聖惠方(卷一)，서울，翰成社，1978，pp.101-104.
16. 楊維傑：內經素問註解，서울，大成文化社，1990，p 126，p 158，pp.482-483.
17. 王肯堂：六科準繩(一)，臺北，新文豐出版股份有限公司，1979，pp.332-334.
18. 王清任：醫林改錯，台北，台聯國風出版社，1975，pp.22-24.
19. 虞搏：醫學正傳，서울，成輔社，1986，pp.274-276.
20. 危亦林：世醫得效方，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1，pp.423-424.
21. 李中梓：醫宗必讀，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7，pp.375-376.
22. 李 梃：懸吐醫學入門(下)，서울，翰成社，1983，p 507，p 615.
23. 張介賓：類經(下) 서울，大成文化社，1982，p 399.
24. 張 路：張氏醫通，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0，p 314.
25. 程國彭：醫學心悟，서울，香港，友聯出版社，1961，pp.209-210.
26. 朱 肅：普濟方，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pp.3455-3457.
27. 朱震亨：丹溪心法附餘，서울，大成文化社，1989，pp.368-369.
28. 陳夢雷：醫部全錄(第六篇)，人民衛生出版社，1983，pp.2119-2121.
29. 陳 言：三因方，台北，台聯國風出版社，1978，pp. 卷九 1-2.
30. 陳永燦 外：實用建腦養生大全，河北省，河北科學技術出版社，1991，pp.1-36，pp.88-122，pp 88-122.
31. 湯本求真：國譯皇漢醫學(卷三)，서울，癸丑文化社，1983，p 204.